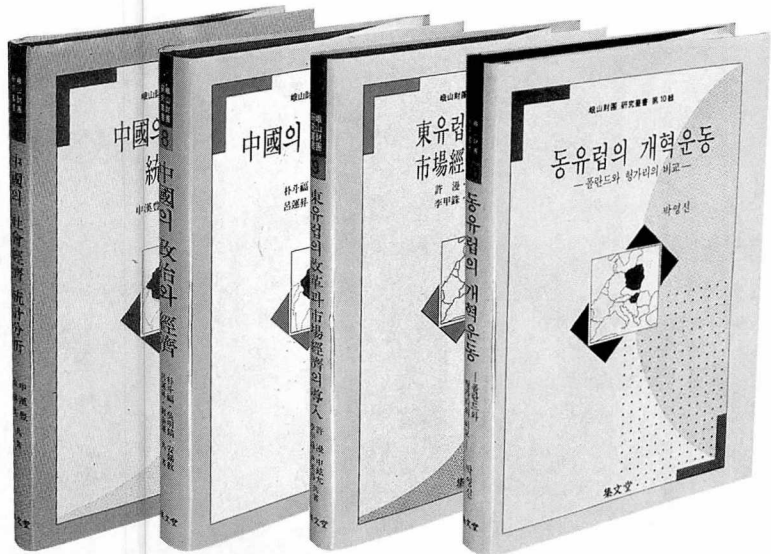


공산권연구 위한 대기업과 출판사의 합작

집문당 펴냄 '아산재단연구총서' 시리즈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이사장 정주영)과 집문당(대표 임경환)의 합작으로 '아산재단연구총서'가 벌써 열 한 권째 나왔다.

기업이 공익의 차원에서 인문사회과학 출판 문화 육성에 뛰어난 선례로 현재까지는, 대우그룹과 민음사가 짝을 이뤄 펴내고 있는 '대우학술총서'만이 널리 알려져 있을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그룹 산하의 아산재단이 출판문화의 장으로 한 발 내딛었다는 사실은 기업문화의 신장이라는 의미 이외에도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발행된 아산재단연구총서는 제1집 「轉換期の 中國經濟」(김윤환), 제2집 「폴란드 經濟의 變遷改革과 그 展望」(김광수), 제3집 「在蘇韓人」(이광규), 제4집 「蘇聯山林과 林業」(홍성천), 제5집 「ASEAN의 政治經濟」(서동천), 제6집 「泰國의 社會變動과 經濟發展」(최석만), 제7집 「中國의 社會經濟 統計分析」(신현풍), 제8집 「中國의 政治와 經濟」

(안석교), 제9집 「東유럽의 改革과 市場經濟의 導入」(허만), 제10집 「동유럽의 개혁운동」(박영신), 제11집 「現代러시아 연구」(기연수) 등이다.

또한 조만간에 제12집 「중국 3개성의 정치경제실태 비교연구」(김성훈), 제13집 「현대 북중국지방의 사회상에 관한 사회인류학적 연구」(김광역), 제14집 「소련 시베리아 개발에 관한 내부논쟁과 일본」(하용출) 등을 출간할 예정이며, 올 한해동안 모두 15종의 연구총서를 더 발간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산재단연구총서는 그리 많이 팔리거나 읽힐 책은 아니다. 베스트셀러가 모두 양서만 있는 것은 아니듯이 독자가 많지 않다고 아산재단연구총서를 사회에 필요치 않은 책으로 분류한다면 그 당사자가 큰 손해를 볼 것이다. 이들 연구총서는 제목에서 비쳐지고 있듯이 동구권이나 구소련, 중국의 사회·정치·경제 등에 주목하고 있는 연구보고서다.

이 연구보고서가 다른 것과 차별점을 갖는

아산재단과 집문당이 손잡고 펴내고

있는 '아산재단연구총서'가 벌써

열한권째 나와 있다. 이 연구총서는

관계전문가가 동구권이나

구소련지역을 직접 답사하고, 현지의

자료를 충분히 활용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서와 질적 차이를

느끼게 한다.

점은 보고서 내용이 매우 실증적이라는 데 있다. 즉 관계전문가가 현지를 직접 답사하고 현지에서 보고 들은 것, 그리고 현지의 자료를 충분히 활용했다는 점이 다른 연구서와 질적 차이를 느끼게 한다.

시간적으로도 오랜 기간에 걸쳐 탐고한 것이어서 내용의 심도는 더하다. 아산재단연구총서가 일반인들에게는 그리 넉넉한 독서거리가 되지 못하는 대신에 관계학자들이나 학생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자료이면서 텍스트로 쓰일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집문당과 아산재단측이 "감히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산재단이 특별연구과제를 신설하고 사회주의권의 변화에 주목하게 된 것은 지난 1987년의 일이었다. 동구권 특히 사회주의의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자는 뜻이 표면화된 것이다. 이 재단의 연구총서도 지역연구를 통한 문화단절 상태의 극복을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총4억원의 예

산을 연구개발지원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아산재단이 집문당이라는 출판사와 손을 잡고 있는 것은 기업이윤의 출판문화 투자라는 측면과 부차적인 이익을 얻기 위함이라고 한다. 아산재단 지원사업부 원치용부장은 이렇게 말한다.

"출판사와 손을 잡고 일하면 우선 출판사에 미약하나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출판사가 갖고 있는 영업력으로 책의 시중유통이 활발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와 독자의 접촉빈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출판사 뿐만 아니라 연구자나 재단의 입장에서 봐도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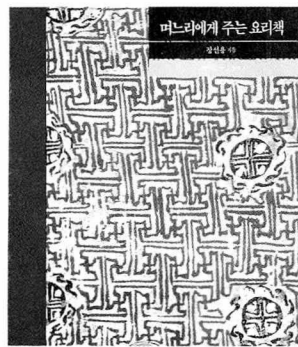
이러한 합작관계를 집문당 우진주 상무도 바람직하게 바라보고 있다.

"아산재단연구총서는 좋은 기획하에 탄생된 책입니다. 물론 그 기획을 우리 출판사에서 세우지는 않았지만 좋은 책을 만든다는 입장에서 책 제작에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연구총서가 대중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책을 만드는 일은 우리 출판계가 담당해야 할 막대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의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문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규모가 방대하지 못한 형편이다. 이런 의미에서 아산재단과 집문당의 '합작'은 기업문화의 사회환원, 출판문화 발달, 그리고 학문의 발달에 모범으로 비쳐질 듯하다.

—이성수 기자

며느리에게 주는 요리책



이 책은 시어머니인 필자가 미국에 사는 두 며느리에게 매일 해먹는 음식만들기와 살림의 지혜를 편지로 보낸 글들을 모은 것이다. 30년간 필자가 직접 해먹은 음식들을 정확한 계량과 경험에서 나온 조리법으로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 준다. 요리에 대한 일반 상식에서부터 식품에 따른 보관요령, 음식을 통한 가족 사랑의 방법, 이웃과의 정을 나누는 음식 부조에 이르기까지 일반 요리책에서 얻기 힘든 실질적인 정보를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다.

장선용 지음 / 12절판 / 200쪽 / 8,000원

학술출판
대학교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전화: 360-3164, 362-6076, 팩시밀리: 312-4312